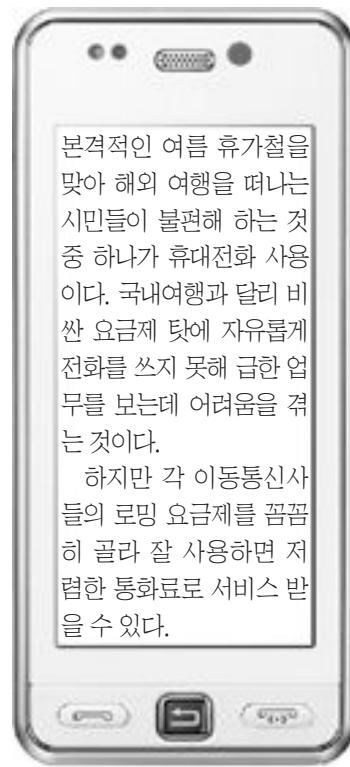


Digital & IT

'해외로밍' 알뜰하게 이용하려면

저렴한 문자메시지 활용하라



이통사 할인요금제·부가서비스 알아두면 요금 절약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 중 하나가 휴대전화 사용이다. 국내여행과 달리 비싼 요금제 탓에 자유롭게 전화를 쓰지 못해 급한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하지만 각 이동통신사들의 로밍 요금제를 꼼꼼히 골라 잘 사용하면 저렴한 통화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해외서는 로밍요금제로 KT는 고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 일본과 중국에서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 요금 대비

50~70%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쇼로밍 저팬 넘버', '쇼로밍 차이나 넘버' 부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원화기준 요금청구 방식을 통해 전체 고객에게 저렴한 로밍서비스를 제공한다. SK텔레콤은 2007년부터 로밍 서비스 이용요금을 '현지 통화 기준 과금'에서 '원화 기준 과금'으로 바꾸고 적용한 환율은 1달러당 955.51원으로 고정시켰다.

직접 통화를 할 필요가 없거나 간단한 일이라면 문자메시지(SMS)를 활용하는 것도 로밍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SK텔레콤 자동로밍은 대부분 국가에서 문자메시지(SMS) 무료 수신이 가능하며, 발신은 SMS 건당 북미·아시아지역이 150원, 기타지역은 3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KT 고객이라면 '쇼(SHOW) 로밍 SMS 쿠폰' 서비스를 이용하면 5천원에 40건, 1만원에 100건의 SMS를 보낼 수 있다.

◇무료 부가서비스도 '꼼꼼히'=

휴대전화로밍 서비스 신청시 뒤따라오는 무료 부가서비스도 잘챙겨야 한다. SK텔레콤은 아시아 지역 11개 이동통신 사업자와 함께 '브릿지 트래블러' 서비스를 통해 해당 지역 내 공항 상점, 공항 리무진, 호텔, 레스토랑, AVIS 등 가맹점에서 5~25%의 할인 혜택을 준다. 브릿지 트래블러 사이트 (www.bridgetraveller.com)에서 회원 가입 후 이메일로 전송받은 ID를 출력해 가맹점에서 세시면 된다.

해외 여행에 따른 시차와 국내에서도 온 전화로 잡을 실친 경험이 있다면 협회지각 안내서비스를 신청하면 좋다. 'T로밍 협회지각 안내서비스'는

'비즈'는 해외에서 로밍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새벽이나 수신이 어려운 시간대에 통화가 걸려오는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발신자에게 수신자의 로밍지역 시각을 커닝방식으로 안내해 준다.

T월드 홈페이지와 공항 로밍 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KT는 휴대전화별로 로밍 사용 정보 및 방문국가의 로밍요금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해외 출국 전 '2626+쇼(SHOW)' 버튼을 눌러 가입할 수 있다. 또 다음달 31일까지 인천공항·김포공항 '쇼(SHOW) 로밍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이용자가 해외여행보험 가입 및 웰스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100% 당첨 쇼석복권을 제공한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한국 휴대전화 요금 '세계 최고'

소비자원 15개국 조사

우리나라 휴대전화 음성통화 요금이 통화량이 비슷한 미국, 영국, 홍콩 등 주요 15개국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한국의 음성통화 요금은 지난해 0.1443 달러로 15개국 평균(0.1024 달러)을 웃돌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우리나라 음성통화 요금 수준이 2004년 10위에서 2006년 7위, 2007년 2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는 2008년 기준 구매력지수(PPP)를 적용해 기업자 1인당 월평균 통화시간(MOU)이 180분 이상인 15개국과 비교한 결과이다. 비교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호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12개국과 홍콩, 싱가포

르, 이스라엘이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 일본, 영국 등 OECD 8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이동통신 기업률이 비슷한 10개국의 1위 사업자들 간 분당 음성통화요금을 비교한 결과 SK텔레콤은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NTT도코모(1위), 네덜란드의 KPN모바일(2위)에 비해서는 싸지만 2005년 7위, 2006년 6위, 2007년 4위에 이어 2008년 3위로 순위가 점차 상승했다.

소비자원이 OECD 26개국과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29개국의 음성통화요금을 분석한 데 따르면 지난 4년간 다른 나라의 기업자당 월평균 음성통화요금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우리나라에는 증가했다.

전반적으로 통화량이 늘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분당 음성통화요금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기업자의 부담도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올랐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전기 얼마나 썼나?

요금 내역 한눈에

다음달부터 받아보는 주택용 전기요금 고지서에 1년간 월별 사용량 변동과 누진요금제의 세부 적용정보 등이 도표와 그래프로 자세하게 담겨 요금내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29일 일반 가정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971년부터 사용해온 기존의 주택용 전기요금 고지서 형식을 38년만에 대체적으로 바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청구서는 사용량과 관련, 요금이 청구되는 달과 앞달, 지난해 같은 달의 사용량 정보만 수치로 표시돼 있음을 형태다.

/연합뉴스

호남권 보험 민원 '부글부글'

올 상반기 1천여건...작년보다 2배 급증

을 상반기 호남권에서 금융 관련 상담과 민원 가운데 특히 보험 민원이 지난해의 2배 가깝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처리한 금융상담과 금융민원은 모두 7천2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천301건보다 35.9%(1천907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금융상담은 5천4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8%(1천85건) 늘었고 금융민원은 1천750건으로 88.6%(822건) 증가했다.

주로 상품 설명 불충분, 자필서명 없는 계약 등을 사유로 납입보험료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이 739건(73.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저축은행과 신협·신용정보사 등을 포함하는 은행·비은행 민원은 742건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8%(327건) 늘었다.

건) 늘었다.

주된 민원 내용은 대출금리 인하나 대출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내용 등 대출 관련 민원이 342건(46.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채권추심 등 신용정보 관련 민원이 111건(15.0%)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 관계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임직원 면담을 통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현장 민원조사를 강화해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노후차량 세제 지원
연말까지 유지될 듯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오는 9월에 종료되지 않고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선 자동차 분야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노후차량 교체에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하는 조치를 통해 12월 31일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완성차 업체들이 구조조정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 지원을 9월에 조기 종료할 방침이었으나, 자동차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입장을 바꾼 것이다.

특히 지난 6월말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노후차에 대한 세제지원마저 조기 종료할 경우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정부의 불안감도 크게 작용했다. 실제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노후차량 세제지원책이 지난 2분기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0.8% 포인트나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 말에 노후차 세제 지원이 연말까지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은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5월 노후차 세제 지원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노후차 지원을 연말까지 하되 자동차 업계의 자구 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실시해 세제 지원의 조기 종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연합뉴스



와인판촉 타투 이벤트

다음달 첫째 주 서울 흥대앞과 부산 해운대에서 실시되는 와인수입업체 금융인터넷에서 날의 '마스크로 타투 이벤트'에 앞서 29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 모델들이 타투 시연행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인동삼일부동산

☎ (02) 23-1140, 5210 원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앞, 대인 소방서근처)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뿐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이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개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래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 383-5221 원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빌딩(임대용, 투자용)

• 토지600평 건물1,350평(매기 85평)
보증금 37평/월세3,300만원 월자 12억

• 토지1200평 건물 2,500평(매기 90평)
보증금 79평/월세 8,000만원 월자 50억

• 토지590평 건물 750평(매기 98평)
보증금 40평/월세 2,000만원 월자 12억

토지(상무지구 상업지역)

(회사사옥, 병원, 학원, 기타부지 등)
• 834.5m²(250평) - 매기평 1,300만원

(클럽스파장과 메가박스 증간사거리카도)

• 611평(185평) - 평당 680만원
(상무 우리들 병원 주변)

기타용도

• (농장) 그린밸트 73,000㎡(212천평) 평
당 10만원 (동산등) 정기투자 좋은 곳

• (국지) 삼성동 약 3,000평 평당 300만원
- 고리고주변(이트, 미식장 등 핵심)

호텔, 모텔

• 상무지구 객실 35개 치적(매기 28평)
(2층 유흥주점 보증금 3000만 원/ 450만 원)

사무실(상무지구 상무주변)

• 세정이플랫 옆 사무실 150평 매매가

평당 400만원

• 현금 45억 투자로 월수1억 가능한
모텔 및 호텔 운영상담

•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경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 아무거나 전화 주십시오★

번영 공인중개사

☎ 062) 531-4665
동림2지구 동림병원앞

모텔

※수익성 좋은 물건 다량 확보※

신축모텔(매매, 임대)

매매 10억 ~ 35억
(용자안고 3 ~ 20억 투자)
임대 : 보증금3억 ~ 7억
월 : 800 ~ 2500만원

무인모텔(매매, 임대)

매매 : 20 ~ 50억
(용자안고 10 ~ 20억 투자)
임대 : 보증금4 ~ 7억
월 : 1000 ~ 3000만원

대중사우나(매매, 임대)